



호찌민: 흐림 공해 낮음, 최대 37도, 최저 27도  
 다낭: 맑음 최대 36도, 최저 28도  
 서울: 맑음, 최대 26도, 최저 14도

환율: 베트남 동 -> 미국 달러  
 살 때: 23,270.00 / 팔 때: 23,640.00  
 (Vietcombank 2023.05.19일 08시 공식 기준)

## 호찌민시 고급사무실 임대료 세계 12위 기록



충격  
 서에 따르면, 월 1000달러로 임차할 수 있는 호찌민시의 A급사무실 면적은 19.9㎡로 상하이-베를린-타이베이-방콕보다 임대료가 높았다. 이는 조사대상 전도시 가운데 12번째, 아태지역에서는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나이트프랭크의 KFVN 1000 보고서는 월 1000달러로 임차할 수 있는 A급사무실 면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찌민시의 사무용 부동산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임차인 우위시장이 이어지며 향후 2년간 임대료가 10~2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급사무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도시는 런던 웨스트엔드지구(6.6㎡)였고, 뒤이어 홍콩(7㎡)이 세계 2위, 아태지역 1위였다. 반면 고급사무실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도시는 쿠알라룸푸르(72.2㎡)이고, 하노이(37.6㎡)는 5번째로 임대료가 낮았다.

호찌민시의 고급사무실 임대료가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6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사이드비자가 18일 보도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Knight Frank)가 세계 21개 주요도시의 사무실 임대료를 조사한 'KFVN 1000' 보고 (인사이드비자 2023.05.18)

## 국회 비자 면제국 확대 검토중



관심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관광객 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를 늘리기 위해 비자면제국 한 확대추진패키지를 마련하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 인사이드비자가 19일 보도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회복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결의안(82/NQ-CP)'의 주 내용은 ▲비자면제국 확대 ▲외국인 출입국이 편리하도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방적 비자면제국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상국과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안부는 전자비자 대상 국 목록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통운송부는 외국항공사들이 국내 노선을 쉽게 개설하고 비행시간 조정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상부는 관광숙박시설 확대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 공급망에 합류하기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재정

## 외교부, 미국무부 '종교자유보고서' 비판 "잘못된 정보에 근거"



비판했다. 항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다양한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다민족국가로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며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며, 개인과 단체의 종교활동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 부대변인은 "종교적 권리는 2013년 헌법, 2016년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실제로 잘 작동 및 유지되고 있다" 며 "우리는 개방성, 솔직함,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포괄적 동반자관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관심사인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종교와 자유의 증진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종교와 자유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미 국무부는 베트남을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와 함께 '종교자유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미국이 내놓은 종교자유보고서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고 인사이드비자가 19일 보도했다. 팜 투 항 (Pham Thu Hang) 외교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2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 대해 "베트남의 상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항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다양한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다민족국가로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며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며, 개인과 단체의 종교활동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 부대변인은 "종교적 권리는 2013년 헌법, 2016년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실제로 잘 작

## 베트남, 중국의 '호양사군도 식당 개장' 반발 "주권 침해"



베트남 정부가 최근 미국이 내놓은 종교자유보고서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고 인사이드비자가 19일 보도했다. 팜 투 항 (Pham Thu Hang) 외교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2 국제종교자유 보

고서에 대해 "베트남의 상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항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다양한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다민족국가로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며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며, 개인과 단체의 종교활동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 부대변인은 "종교적 권리는 2013년 헌법, 2016년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실제로 잘 작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신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 DAILY AD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톡 "신짜오베트남" ([http://pt.kakao.com/\\_vaUWd](http://pt.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엄선된 그날의 주요 뉴스를 담은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와 함께 하는 높은 주목도로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 283. 2000 | T. 028. 3511. 1075 / 1095

# KWater

## 세면대 전용 정수기

녹물 0% 잔류염소 0% 곰팡이균 0% 바이러스 0% 박테리아 0% 각종 세균 0%

일시불 (VND) 1.800.000 ( 6개월사용 )  
 일시불 (VND) 3.300.000 ( 1년 사용 )  
 1년 사용필터 포함 + 세면대 정수헤드

녹물 염소 중금속 제거 100% NSF

고객님들께 추천 드립니다

- 01 안전한 양치 기구 / 세안을 원하시는 고객님들
- 02 365일 녹물 전혀 보지않고 생활을 원하시는 고객님들
- 03 대용량 필터로 6개월에 한번 손쉬운 자가 필터를 원하시는 고객님들

3개월 책임 보상제 실시

무료설치

호찌민 081.455.3849 | 하노이 079.251.9055  
 TALK kwatern | www.kwatervn.com

Ch 신짜오베트남

매일 발행 되는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를 카톡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는 사이

한주필 칼럼

젊은 시절, 3살 위의 형과 양복을 맞추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양복인지, 왜 양복을 맞춰야 하는지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한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복점 주인이 형과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양복을 만들기 위해 그 양복점에 가서 몸 치수를 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옷이 나오겠지요. 당시 양복은 아주 비싼 의복이고 대부분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행여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치수를 재고 형은 그 양복점 주인인 친구분과 몇 마디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양복점을 나왔습니다. 저는 좀 불안한 마음에 형, 잘 아는 친구인데 좀 특별히 잘해달라고 당부한 말이라도 한 번 하지 그랬어 하고 물었더니 형이 하는 말, "잘 아는 사이니 말을 안 하지. 아마 말 안 해도 잘 해줄 거야" 하며 웃습니다. 당시 저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는 사이인데 가격도 싸게 하고 뭐가 특별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긴 세월을 살고 보니 나중에 깨닫는데, 잘 아는 사이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배려를 해주는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누구가 뭐가 구입을 하기 위해 어느 가게에 간다는 말을 들으면, 옆에 있던 사람이야, 그 집 주인 내가 잘 아는 데, 내 얘기하면 좀 깎아줄꺼야 하며 자기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구하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아는 분이려면 제 가격을 받도록 해드려야지, 자기 이름을 팔아서 잘 아는 분에게 손실을 가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구입자 역시 잘 아는 분이니 그분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배려하는 일인건 하지만 자기 얼굴을 내세우기 위해 아는 분에게 은근한 특혜를 요청하는 것은 잘 아는 사람에게 보일 자세는 아닌 듯합니다. 예전에 빈증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잘 아는 분이 하시는 식당인데 그때

가 아마 코로나 때로 기억하는데, 그 여파인지 손님이 없는 탓에 일정 기간을 두고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반값으로 음식을 팔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별히 풍족하게 음식을 시키고 계산서가 나오는데 반값입니다. 종업원에게 제값을 다 받으라고 제값을 다 주었습니다. 종업원의 말을 듣고 주인장이 나오셔서 정색을 하며 안 된다고 반값만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밀당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값을 다 치렀는지 아니면 주인장의 고집으로 반값만 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이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잡지사를 20년 운영하다보니 쌓아온 인맥이 제법 됩니다.

어느 날 그 많은 인맥 중에 후배 한 명이 연락합니다. 광고를 내줬는데, 대폭 할인을 요구합니다. 잘 아는 사이니 그 정도 혜택은 줄만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모양입니다. 제 속마음에는 '잘 아는 사이면 좀 후하게 주면 안 되나, 꼭 특혜를 받아야 잘 아는 사이가 유지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으면서 거절했지만 속이 편치 않습니다. 평소에는 배포가 큰 인물로 알던 친구가 연을 앞세워 대뜸 특별 혜택을 요청하는 것은 그리 자랑스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는 사이라고 무작정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일방적 인맥은 만남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아는 만큼의 혜택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고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집사람이 SS 패션으로 불리는 사이공 스퀘어라는 유명 시장에 가끔 갑니다. 한가한 날 훌륭한 소일거리가 됩니다. 그곳에서 가격 흥정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 합니다.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니 상

점 주인과도 얼굴을 익히고 서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 흥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깎는게 아니라 서로 양해할 만큼만 적당히 조정해서 산다고 합니다. 상호 믿음이 생기는 관계가 됩니다. 하다못해 몇 번 작은 물건을 사고 팔아도 아는 사이가 되면 상호 믿음이 생기고 상대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베트남에서는 무조건 가격을 깎으려 듭니다. 시장이건, 길거리 노점이건 관계없이 그들이 부르는 가격은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품 좀 먹어도 되지 않나요? 길거리에서 손수레나 자전거에 과일을 싣고 파는 사람들의 처지보다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상황이 좋지 않나요? 속는 셈 치고 부르는 대로 다 주면 어떨까요? 기껏해야 몇만 동인데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들에게 모르는 척 작은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이 사회를 정겹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리라 믿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일은 매체에 거창하게 사진과 함께 실리는 거금을 제공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길거리 행상에게 후하게 물건을 사주는 일도 우리 이웃을 돕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몇 번 그렇게 물건을 사고 얼굴을 익히게 되면 서로 아는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아는 사이가 되면 더 이상 엉뚱한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는 사이란 이렇게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려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특혜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 공부를 덜 한 분입니다.

아는 사이를 내세워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기 전에 그 믿음의 관계를 쌓기 위해 자신은 어떤 역할과 배려를 했는지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듯합니다.



**이스토어**

## 이스토어가 한다

## 베트남 최초

## 미국 자몽 수입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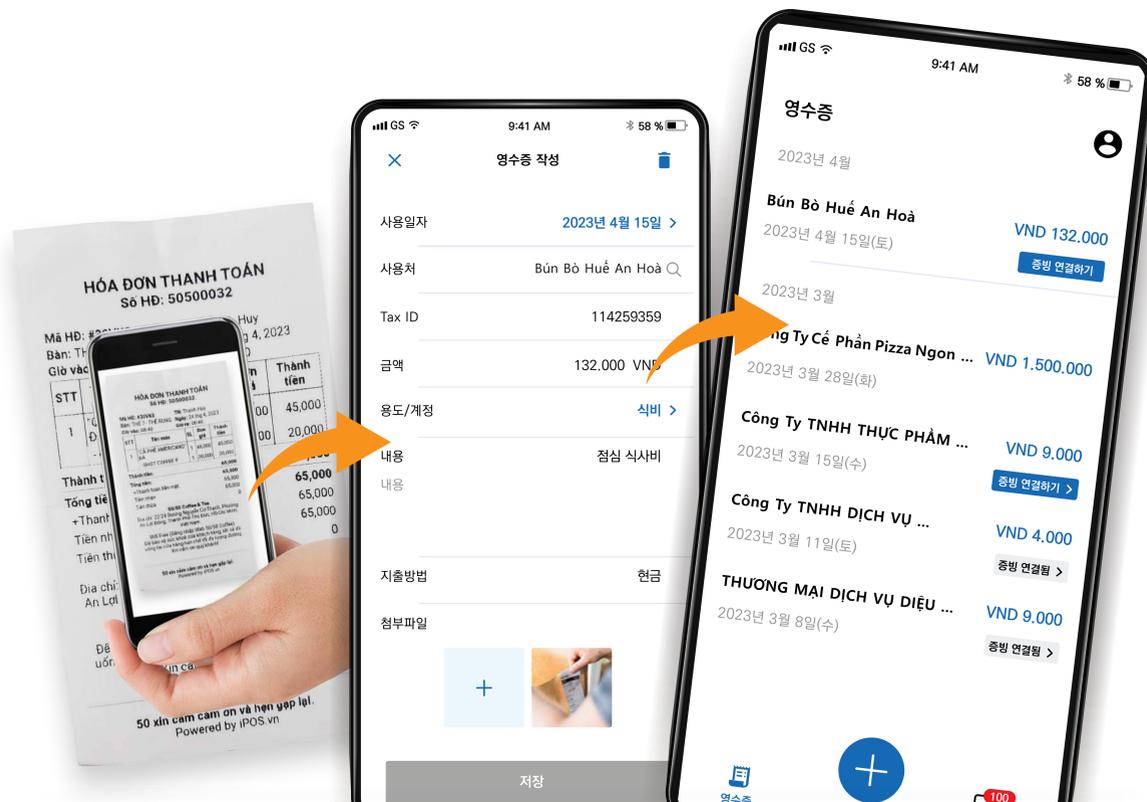
FRESH GRAPEFRUIT  
카카오톡: KG531

**신짜오베트남 부설 대정컨설팅**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베트남 투자자문, 법인설립, 노동허가, 각종 라이선스, 거주증, 비자등

Tel : 083 568 1000(KR) / 0906 822 374(VN) E-Mail : kksjeon@gmail.com

# 모바일로 영수증만 찍으면 증빙 처리 3초만에 끝!



대한민국 60,000여 중소기업의 사랑을 받고있는  
시경리나라의 좋은 점만 쓱쓱 뽑아 베트남에 왔습니다.

무료 체험 상담 : (+84) 028 7300 1660 베트남어, 영어  
(+84) 028 7300 1661 한국어

WWW.WABOOKS.COM / Info.vn@wabooks.com

© 2023 All rights reserved.



**Ch** 신짜오베트남
+

매일 발행 되는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를 카톡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 DAILYAD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광고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 028.3511.1075/1095

카카오톡 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독방 50여곳에 배포

